

북한개발소식

10

2021 OCT | 통권 192호

| 이달의 주제 |

북한 핵 문제와 우리의 기도



북한 핵 문제와 선교적 고민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CONTENTS 2021 OCT

이달의 주제 :

북한 핵 문제와 우리의 기도



권두칼럼	01	북한 핵 문제와 선교적 고민
칼럼_1	08	오픈도어 현장사역자_ 북핵문제와 우리의 기도
칼럼_2	14	문성묵_ 북한 핵 문제의 이해와 전망
칼럼_3	20	유영식_ 북한 핵 문제의 이해와 전망
탈북민 수기	26	편집자_ 꿈 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복음의 푸른 꿈이 다시 돌아나기를
북한 뉴스	32	문 대통령 종전선언 제안에 북한 연이은 긍정 담화 외
서평	35	뺨인가 이마인가 1925-26년, 허시모 사건의 진실
북한 기도 제목	39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8월 27일 보고서를 통해 영변 핵시설 내 5MW 원자로와 관련해 “2021년 7월 초부터 냉각수 방출을 포함해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5MW 원자로를 북한의 핵무기 제작과 관련된 핵심 시설로, 여기에서 가동 후 나오는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이 추출된다. 아울러 IAEA는 올해 2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5MW 원자로 근처에 있는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 연구소가 가동된 정황도 있다고 말했다.

플루토늄 추출 정황 외에도 우라늄 농축 시설의 가동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9월 13일 IAEA 이사회에서 최근 영변 원심분리기 농축 시설에서 냉각 장치를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는 새로운 움직임도 공개했다. 이는 IAEA 보고서에도 없었던 내용으로 최근까지 가동 중단 상태였던 우라늄 농축 공장을 재가동하려는 징후로도 해석된다.

북한이 핵시설을 재가동한 것은 18년 싱가포르 북미 회담 이후 처음이다. 북미 비핵화 대화의 성사로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것으로 기대했지만, 하노이 노딜과 미국의 정권 교체 등으로 진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 활동이 포착된 것이다.

북핵 이슈는 북한과의 대화에 핵심 의제이며 대북제재의 직접적인 원인인 만큼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최근 핵 활동에 따른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기도제목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평화적인 북핵문제 해결의 어려움

북핵문제에 대한 기독교적인 접근은 대체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핵의 폐기를 추구한다. 핵무기는 막강하면서도 무차별적인 살상력을 가진 위험한 무기이다. 관점에 따라 전쟁 억



〈북한 조선로동당 7차 대회(아래)와 8차 대회(위) 대회장의 모습. 7차 대회에서 전면에 자리했던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8차 대회에서는 사라졌다.〉

제 또는 정의 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필요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많은 이들을 한 순간에 희생시킬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는 분명히 신앙적 관점에서 긍정할 수 없는 존재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평화적 비핵화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북핵 문제는 북한의 체제 보장 이슈와 연결되어 있다. 근래의 북미대화의 의제도 미국 측의 요구가 북한의 핵의 불가역적인 폐기였다면 북한 측은 요구는 현 체제를 보장할 수 있는 확실한 대가였다. 이런 맥락에서 북핵 문제는 단순한 군축을 넘어서 북한이 어떤 국가가 될 것인지, 즉 북한의 정상국가화와 관련이 있다.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북한의 정상국가화라고 분석한다. 정상국가화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제법과 국제 규범 등을 지키는 국가를 의미하며 그 특징으로 국제규범 준수, 인권 보장, 국민 복지 추구 등이 꼽힌다.

재미있는 사실은 북한이 김정은 정권 이후 표면적으로나마 정상국가화로의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¹ 북한은 헌법에서 그간 극심

한 경제난을 군대를 앞세워 극복하려 했던 선군정치의 색채를 빼고 다시 당을 전면에 내세웠다. 또한 김정일 통치기 동안 중단되었던 당 대회 및 전원회의 등 각종 회의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군대가 통치하는 비정상적 구조를 벗어나 당과 행정부를 강화하고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다운 모습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올해 있었던 조선로동당 8차 대회에서는 대화장 전면의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때어내는 파격을 보이기도 했다.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국가 기조로 내세우며 경제난 해결에 나선 것도 정상국가화의 일환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물론 북한이 말하는 정상국가는 사회주의 정상국가로서 한계가 있지만 적어도 소위 말하는 불량국가가 아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그 동안 핵 개발을 위해 국제 사회의 규범을 무시해왔고 이로 인해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보통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그럼에도 핵은 포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그리고 핵보유국의 위치에서 미국과 대화함으로써 본인들이 생각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내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나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기에 대화는 근본적인 진전 없이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

북핵문제의 심각성

문제는 북한이 이미 상당한 양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지니고 있는 것을 기정사실로 본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9년 북한의 핵무기는 20~60개이며 수량을 꾸준히 늘려왔다. 올 4월 발간된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연구소가 공동으로 발표한 ‘북한 핵무기 위협대응’이라는 보고서는 북한이 2027년 최대 242개 핵무기와 수십 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²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는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는 기술적인 이슈보다는 정치외교적인 측면의 일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핵을 인정한다면 한국과의 동맹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핵 비확산 원칙을 포기했다는 선언으로 해석되는 부정적 선례로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물론 일본, 대만 등이 핵보유를 추진하는 핵 도미노 현상도

우려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의 폐기는 남북 관계를 넘어서 국제 정세적으로 중요한 이슈이다. 하지만 북한과의 대화 시도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한 정치적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장 가능성이 높아보였던 근래의 북미 정상회담 진행이 하노이 노딜 이후 정체되면서 북한은 대화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상당부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미 정부가 과거 리더십간의 전폭적인 협상안을 기대할 수 있었던 트럼프 정권에서 실무진에서부터 바텀업 방식의 협의를 추구하는 바이든 정부로 교체되면서 대화를 통해 극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는 기대도 한 풀 꺾인 상황이다.

전문가들의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시각은 엇갈린다. 어떤 이들은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주문한다. 앞서 언급한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연구소 공동 리포트는 북핵 협상이 실패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제는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무기 공격을 억제하고 억제를 실패할 시 북한의 공격을 격퇴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진단한다.³ 즉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조건하에서도 전쟁을 치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김정은 정권을 확실히 궤멸시키겠다는 미국의 현 정책을

1 김병로, 2021, “‘정상국가’를 향한 열망과 기대: 북한의 8차 당대회 평가와 전망”, 한반도평화연구원 KPI Issue Brief 제 9호, 1-2.

2 브루스 W. 베넷 외, 2021, 북핵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아산정책연구원 & RAND Corporation. 23-36. <<http://www.asaninst.org/wp-content/themes/twentythirteen/action/dl.php?id=79856>>

3 위의 책, 59-81.



〈북한 영변 핵시설 현황. 원자로 외에도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생산 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행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단순한 군사력 보강을 넘어서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 직접적인 지도부 타격 등 북한이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위협과 실제 작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북한을 좌절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북한이 더 이상 핵무기가 정권에 상당한 효용을 가져다줄 수 없으며 실제로는 부담이라는 점을 설득시키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군

사적 충돌도 염두에 둔 주장으로 보이지만 적극적인 안보 태세 확립과 대응을 통해 오히려 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제시된 대안이다.

다른 관점으로는 북한이 하노이 회담에서 언급했던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을 다시 진행함으로써 북한의 핵 역량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북핵협상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특히 최근 핵 활동이 감지된 영변 핵시설을 주목하고 해당 시설의 폐기도 북한 비핵화에 분명한 효과가 있다는 관점에서 하노이 제 2차 북미 정상 회담 당시 제시되었던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주문한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영변에 원자로를 비롯하여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재처리시설이나 우라늄 농축 관련 시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핵시설의 불능화가 불가역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미니 비핵화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한다. 이어 마치 빵가게가 레시피만 있으면 빵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미 북한은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김정은은 핵무기 관련 시설을 제값에 교환하고 그 대가를 자신의 정권유지에 활용하겠다는 전략적 계산을 이미 끝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맥락에서 저자는 영변 핵시설 폐기라는 상대적으로 쉬운 것을 먼저 진행하면서 그보다 넓은 범위의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 관련 협의를 이원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⁴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IAEA 보고서에 대한 평가 리포트에서 현재 북한의 핵시설 재가동 정황은 과거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핵위기와 미사일 도발과는 달리 조용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도발용은 아니지만 엄중한 안보위협이라고 진단한다. 그리고 과거 영변 핵시설을 철지난 고철덩어리로 보는 시각도 있었지만 북한 최대 핵 연구개발단지로서 계속 해서 핵무기 생산을 위한 활동이 진행되는 만큼 엄중한 안보위협이며 그 폐기도 의미가 있다고 분석하고, IAEA의 북핵보고서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쉽 없이 가동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일체 북핵 활동 동결을 목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⁵

밝지 않은 전망

북한은 핵 시설 가동 재개에 이어 9월 들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9월 11, 12일에는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으며 15일에는 철도를 이용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특히 탄도미사일의 경우 안보리 결의 위

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북한은 18년 말 이후 최근까지 관련 활동을 자제해왔으나 올해 3월에 이어 9월에도 연달아 탄도미사일 발사를 실시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뿐 아니라 대외 정책의 변화를 예상케 하는 대목이며 북핵 문제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는 장면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를 준비하며 미국의 관심을 끌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포석일 수도 있고, 남한의 대선을 의식한 도발적 행보일 수도 있다. 또는 지지부진한 협상에 실망하고 핵 포기 없이 계속해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일지도 모른다.

북한의 핵활동 재개 사실이 보도된 이후 미국과 한국 모두 북한에 조건없는 대화에 나설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현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이나 한국 모두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먼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조정된 실용적 접근(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이라는 표현으로 대표된다. 트럼프 정부식의 빅딜이 아닌 핵능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스몰딜을 지향하고 있으며,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다른 관여의 확대를 통한 실용주의를 지향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별히 동맹과 연대를 강화하고 외교적 해법을 우선하며, 북한의 행동을 강제하기 위한 억지를 최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바

4 이병철, 2021, “북한 핵 능력과 영변 핵 시설 가치에 대한 소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IFES Brief 2021-23.

5 전봉근, 2021, “IAEA 북핵 보고서 평가와 대응방안” 국립외교원 IFAN Focus 2021-15K.

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오바마 정부가 채택했던 전략적 인내 정책의 재판이 될 개연성도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위원은 이미 대북제재는 최고 수준이며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강한 억지가 통하지 않았을 때의 대안이 마땅치 않다며 전략적 인내 시즌2로 호를 가능성을 우려했다.⁶ 과거 전략적 인내 정책의 실패 역시 인내 기간 중 북한의 행위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바이든 정부의 행보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부채질한다. 먼저 금번 IAEA 발표 이후에도 미국은 대화 복귀 촉구 외에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핵 시설 재가동 동향을 확인했을 미국이 이를 ‘전략적으로 무시’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아프간 철수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북핵 이슈가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⁷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 역시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취하기 어려울 듯하다. 이런 맥락 속에서 변수를 창출하고 다시금 북핵대화를 진전시켜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선교적 관점에서의 고찰과 기도

최근 북한은 경제적으로는 제재를 견디면서 버티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정치 군사적으로는 핵과 미사일 무장을 다시금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제재 국면의 지속과 협상의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자신들이 바라는 대가를 얻기 전까지는 끝까지 버티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코로나 상황은 점차 찾아들 것이고 중국이라는 든든한 우방국이 있으니 북한의 전략이 아주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고통 받는 것은 또다시 보통의 북한 서민들이 될 수밖에 없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몇몇 엘리트의 안위와 부를 보장하기 위해 다수의 서민들이 희생하는 북한의 현실은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북한 선교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 땅의 영혼들을 생각한다. 우리가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무고한 희생자를 발생시키지 않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하신 주님의 마음을 따라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은 핵개발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자초해왔다. 대북 제재는 실제로 북한의 대외 교역과 노동력 수출 및 인적 교류를 제한하고 있다.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된다면 좀 더 자유로운 인적 교류가 가능해지고 자연스럽게 선교의 기회도 더 커질 것이다.


외부와의 교류 활성화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

북핵 대화가 큰 진전을 이루어 북한이 정상국가화 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더욱 긍정적일 것이다. 사실 북한은 대북 제재가 아니더라도 코로나19 방역을 비롯한 여러 이슈를 명분삼아 외부 정보 유입 차단과 외래 문화 통제, 국경 통제에 힘써왔다.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는 억압받고 있다. 하지만 정상국가화를 통해 일정 부분 개혁개방으로 나아간다면 북한 주민들이 더 많은 자유와 인권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인권 부분에서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을 준수하거나, 적어도 중국 및 베트남 등의 다른 사회주의 국가 수준으로라도 개선된다면 종교 박해 감소 등 선교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비핵화가 인권 증진이나 개혁 개방의 효과 없이 현 체제와 시스템만 강화시켜주는 꼴이 되어서는 안된다. 북한 지역에서 기독교 박해의 주요 행위자가 바로 북한 당국임을 고려할 때 오히려 박해 상황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악의 가정이지만 북한이 원하는대로 (사실상의) 핵보유국 또는 핵무장국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북한 정권의 이후 행보에 따라 한국의 안보마저 위태로운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우리는 북핵문제가 북한의 변화와 함께 진행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

한 맹렬한 필박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 당국이 태도를 바꾸고 국제 규범과 인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기독교 박해를 중단하거나 적어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북한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평화를 위한다는 이유로 침묵한다면 북핵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형제 자매들을 저버리고 문제의 원인을 방치하는 잘못을 범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 정권을 악으로 규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화와 협상을 포기하며 군사적 징벌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망각하는 일이다.

구약의 요나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니느웨의 죄악이 그분께 상달될 지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아직 죄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십이만의 어린 영혼을 생각하시며 니느웨를 멸망시키길 원치 않으셨다. 그래서 그 땅을 중오했던 선지자 요나를 보내서라도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다. 악한 성 니느웨가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 지도자부터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주님께 돌이켰던 것처럼 북한을 포함한 이 한반도에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하며 딜레마이자 난제인 북핵 문제가 오히려 돌이킴의 기회로, 하나님께 회개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길 기도한다. 

6 조한범, 2021, “재검토를 마친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평가와 대응방향”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1-14, <http://www.kinu.or.kr/pyxis-api/1/digital-files/9b4fb5e1-6e31-49ef-8e06-01a9404d7ff3>

7 홍제표, “[한반도 리뷰]바이든,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나”, 노컷뉴스, 21.09.07 <https://www.nocutnews.co.kr/news/5620074>

북핵문제와 우리의 기도

오픈도어 현장사역자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달 8월 27일 연례 이사회 보고서를 통해 영변 핵단지의 5MW(메가와트) 원자로와 관련해 “2021년 7월 초부터 냉각수 방출을 포함해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들이 있었다”면서 “5MW 원자로와 방사화학연구소가 가동된다는 새로운 정황들은 심각한 골칫거리”라고 발표했다.¹ 또한 북한전문매체인 38노스에서 북한국에서 원자로 재가동의 결과로 보이는 가스 누출이 감지 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국내 주요 언론에도 보도되었으나, 국내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특별한 위협의 증대로 여기지 않는 시각이다. 영변의 원자로 가동으로 연간 6-10kg을 생산해내지만 이미 영변 이외의 지역에서 연간 고농축 우라늄을 100kg이상 만들어내는 상황이며 북한은 이

미 2018년경에 최소 10개에서 최대 60개 가량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² 북한은 2017년에 이미 수소폭탄과 중장거리 미사일 역량을 보여주었고, 매년 미사일 실험과 열병식을 통해 개량된 미사일의 성능을 과시하고 있다. 또한金正은은 2021년 8차 당대회의 보고를 통해 1만 5,000km사정권 안의 임의의 전략적 대상들을 정확히 타격소멸할 고체연료 ICBM개발과 장거리 타격능력 재고를 위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 무기 보유를 추진할 것이며 태평양 연안 미국 주요도시와 기지를 핵공격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이미 위협한 바 있다.³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핵무기는 내부적으로는 정권의 권위를 고양하는 선전 수단

2 김진하, “김정은 북핵외교 담론 분석: 대미전략을 중심으로,” 『전략연구』 28집, 2호, (2021. 7) p. 168.

3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노동신문』, 2021년 1월 9일.

1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2021, 9, 1, 노규덕 “美, 북핵 문제 선결과제로 다뤄나갈 것”



〈지난 2008년 6월 냉각탑(오른쪽) 폭파를 앞두고 촬영한 북한 영변 핵시설.〉

이고 남한을 향해서는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일거에 뒤집어 남북관계를 지배할 수 있게 만드는 군사적·정치적·외교적 무기이다. 또한 핵이슈 자체가 북한에 있어서는 G2로 불리우는 미국, 중국과 상대함에 있어서 절대적이고도 결정적인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5일 ‘북핵 CTR 협력 관련 한미 국제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CTR 사례의 시사점을 북핵문제 해결에 참고하며 한반도판 CTR을 구상해보는 것은 몇 가지 측면에서 유용한 접근”이라고 말했다.⁴ CTR 모델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카자흐스탄 방문 때 ‘카자흐스탄 비핵화 모델’로 지칭한 ‘협력적 위협감축(Cooperative Threat Reduction)’프로그램

4 뉴스핌, 2021 9. 15, “이인영 ‘한반도판 CTR 구상, 북핵문제 해결에 유용한 접근법,’”

램을 뜻하는데, 김연철 전 장관도 비핵화의 창의적 해법으로 거론한 바 있는 구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대표적 비핵화 옵션이다.

월간 북한소식 5월호의 북핵문제 칼럼에서는 NPT 설립 이후로 핵개발에 성공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보았

다. 이번 칼럼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의 전현직 통일부 장관들이 제시한 CTR사례를 포함하여 과거 국제사회의 핵개발 저지 사례를 살펴보고 이 국가들과 북한의 상황을 비교하고자 한다.

리비아

리비아는 NPT가입국이었으나 1979년 미국대사관 방화사건 이후로 미국과 단교된 상태였다. 1981년 양국간 공중전 발생으로 리비아 전투기 2대가 격추되었고, 이후 리비아는 1986년 독일주둔 미군공격, 1988년 펜암 항공기 폭탄테러의 배후로 지목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안보적 대비 차원에서 핵개발을 시작했다. 1980년대부터 핵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부품을 취득하기 시작했으며 1997년 파키스탄의 칸(A.

Q. Khan)박사의 불법거래망을 통하여 원심분리기를 구매하였다. 원심분리기의 구입에 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이미 불법거래망을 통하여 수많은 기자재와 지식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3년에는 파키스탄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원심분리기 부품을 적재하여 리비아로 향하던 선박이 나포되는 일이 발생한 후 미국을 중심으로한 국제사회와 비핵화 협상 끝에 2003년 12월 리비아의 지도자 카다피(Muammar Gaddafi)는 전격적으로 비핵화를 선언한다. 비핵화의 조건은 지난 25년간 테러지원국으로서 받았던 수많은 경제제재의 지원과 경제보상 이었다. 2004년 리비아에 미국대표부가 개설된 후 서구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졌고 이는 리비아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 2005년 10월 미국은 리비아의 핵폐기 완료를 발표했고, 이어 2006년 5월 트리폴리주재 미국연락사무소가 대사관으로 승격되면서 미국-리비아의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고 곧이어 리비아는 25년만에 테러지원국에서 제외되었다.⁵ 핵포기 이후 국제사회에 편입된 리비아의 가다피 정권은 2011년 ‘아랍의 봄’으로 불리는 민주화운동으로 붕괴했다. 당시 국제사회는 반군을 지원했고 가다피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은 반군에 의해 사살되었다.

2018년 싱가포르 회담을 앞두고 5월 16일

북한은 회담 무산 가능성을 경고했다. 당시 북한은 불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한 리비아식 비핵화 해법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5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카다피 정권의 몰락으로 궁극의 결론이난 리비아 모델을 북한에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후 회담을 위한 소통이 재개 되었으나 이후로도 북한 당국자의 리비아모델 언급에 대한 반발이 지속되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촌극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 해프닝을 통해 북한이 리비아모델에 보이는 알려지 반응이 확인되었고 미국은 리비아모델에 대한 북한의 레토릭을 인정하였다. 이는 리비아모델은 북핵문제 해결에 선택지가 될 수 없음을 서로가 확인했다는 의미로 평가된다.

남아공

남아공 정부는 1948년 우라늄 매장량 조사를 위한 원자력 공사설립 1961년 국립원자력센터 설립에서 알 수 있듯 원자력에너지의 선진국이었다. 남아공은 1960년대 후반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던 소련의 팽창주의에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1974년 정식으로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여 1977년 고농축우라늄 코어가 빠진 첫 핵폭탄 제작에 성공하였다. 1982년 첫 핵무기 생산에 성공한 이후 고농축우라늄 생산량에 맞추어 1990년까지 55kg의 고농축우라늄을

탐제한 6개의 핵무기를 비밀리에 생산하기에 이른다.

1989년말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이후 공산권 해체가 시작되면서 남아공 국민들은 더 이상 소련을 최대 안보위협으로 보지 않게 되었다. 안보위협이 소멸됨으로 인해 핵무장의 동기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1989년 취임한 드클러크 대통령은 아직까지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폐기하기로 결정한다. 1990년 7월에 시작된 핵폐기 작업은 1993년 3월 23일에 완료되었고 남아공 정부는 바로 다음날인 3월 24일에 과거 핵무장 - 핵폐기 사실을 공개하였다.

남아공은 이미 인종차별정책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드클러크 정부는 국제사회 재진입을 위해 인종차별 철폐를 결정하였다. 남아공의 핵폐기는 이와 맞물려 시행되었다. 결국 남아공은 인종차별 철폐와 핵폐기를 동시에 이루어 국제사회로의 편입에 성공하게 된다.

‘남아공 모델’은 스스로 핵무기를 만들었다가 스스로 폐기한 유일한 사례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2월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를 떠나 뉴질랜드로 향하는 기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바 있으며, 2018년 5월 4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매슈 포틴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등에게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한다.

남아공의 비핵화의 근거에는 남아공 내 정치구조의 변동이 있었고, 새로 등장한 지도자 드클러크 대통령이 평소 강한 국제규범과 핵비확산가치의 신봉자라는 사실이 작용했다. 거기에 더해 이를 뒷받침하는 국내 세력의 핵비확산과 국제주의적 정치연대가 있었다. 북한과 남아공의 상황에는 많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CIS국가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는 구소련이 배치한 핵탄두를 그대로 물려받았는데 핵탄두의 개수는 우크라이나 4,025기, 카자흐스탄 1,410기, 벨라루스 100기였다. 이는 이들 국가들이 러시아와 미국에 이어 전 세계 3, 4, 5위의 핵보유국이 되었음을 의미한다.⁶ 당시 국제사회는 구소련 국가들의 핵무기를 러시아로 옮겨 러시아 이외의 모든 구소련 국가들을 비핵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중 우크라이나는 핵포기에 대한 극심한 내부논쟁에 휩싸였고 그로인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냈다. 1991년 미 상원위원인 샘 넌(민주당)과 리처드 루거(공화당)가 협력해 ‘협력적 위협감축(Cooperative Threat Reduction)’ 프로그램

5 전봉근, 『비핵화의 정치』 (서울: 명인문화사, 2021), pp. 136-143.

6 김영준, “왜 북한은 우크라이나랑 다른가?,” 『세계지역연구논총』 제 37집 4호(2019), 한국 세계지역학회, p77.



〈1990년대 러시아에서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에 따라 구소련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해체하는 모습 (위키피디아)〉

을 제안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이들 국가들의 핵 포기를 위하여 안전을 보장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법에 따라 미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에 재정지원을 통해 수천기의 핵·생화학무기 제거와 핵·미사일 관련 인력의 직업훈련과 재취업 등을 지원토록 했다. 당초 계획은 1992년부터 1995년까지 매년 4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1992년 이후 수년간 매년 10억 달러 가량을 집행하였다.⁷

구소련국가들과 북한의 상황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구소련 국가들이 보유한 핵탄두는 소련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각 국가들이 직접적으로 핵개발에 투자한 비용이 매우 적은 반면 북한은 핵개발을 위해 노력-자본-고립 등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였다. 1990년대 초반은 탈냉전 상황으로 국제정세의 안보위협이 급감소하는 시점이었으

나 2021년의 현시점은 미중패권경쟁으로 인하여 국제안보의 측면에 있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구소련국가들은 체제변화에 대한 큰 열망이 있었으나 북한정권은 현 체제 유지에 사활을 건 상황이며, 실제적 적대국의 존재유무에도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협력적 위협감축(CTR)최대의 성공사례로 여겨지는 우크라이나는 핵폐기 이후 크림사태를 통해 영토를 잃는 굴욕을 겪었다. 한국과 국제사회의 입장에서 보자면 북한도 우크라이나처럼 CTR에 협력하여 핵을 폐기해주면 고마운 일이겠으나, 북한은 이에 협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CTR이 유의미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존 구소련 국가들에게 제공했던 시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체제보장과 재정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의 기도

지난 30년의 북핵협상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남한과 미국을 필두로 한 국제사회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무언가 해보려 끊임없이 노력했음에도 북한의 핵문제는 계속 악화되어왔다. 북한의 핵무장 완성과 핵억제력 확보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진단이 나온 지도 오랜 시간이 흘렀다. 학계에서는 1970년 NPT발효 이전부터 핵을 보유한 국가(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를 지칭하는 '핵보유국(NWS: Nuclear-Weapon State)'과 더불어 합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핵부기

를 보유한 나라를 보통명사로 '핵무장국(Nuclear-armed State)'라는 단어가 사용된다. 과거 핵무장국은 기존5개국에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추가되었으나 최근에는 여기에 북한까지 포함하여 다루는 연구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과거 한국이 겪어온 '북한 디스카운트'는 이제 '북핵 디스카운트'로 발전하는 중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참고할 것은 핵무장과 핵포기에 관한 이론과 해외 비핵화 사례를 들 수 있다. 첫째로 핵무장-포기 이론은 1945년 핵무기의 개발과 사용 이후 많은 학자들이 핵확산과 핵전쟁 방지를 목표로 연구를 이어오고 있고 그 결과로 핵무장의 이유와 핵포기의 조건과 결과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개발하였다. 둘째로 비핵화사례는 핵을 유산으로 물려받거나 핵개발에 성과를 거둔 사례들의 배경과 동기를 분석하여 중대한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핵폐기의 성공사례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첫째 핵폐기는 국제관계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다는 것이다. 구소련 국가들은 냉전체제의 해체되고 국경을 접한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자국에 우호적으로 남게된 상황이 절대적 영향을 미쳤고 남아공의 핵폐기 역시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던 소련의 해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둘째로는 핵폐기 이외의 국가 내부의 중대한 정책변화의 산물로 핵폐기가 결정

되었다. 리비아와 남아공 모두 기존에 지속되어오던 반미주의와 인종차별정책을 청산하고 국제사회로의 편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핵문제를 과감하게 포기하였다. 물론 국제사회로의 편입을 결정한 근거에 국가위상제고와 경제문제가 있었다. 지금 국제사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는 미중간의 대립이고 북핵문제는 두 나라 모두에게 외면할 수 없는 이슈이다. 우리는 국제역학관계의 변화 과정에서 남한과 북한의 평화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 조성되기를 기도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이룬 국가들과 다른 점은 국경을 마주한 실질적 위협이자 통일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분명한 주적 즉 남한의 존재이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남한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입장을 보이지만 북한의 핵무장에 있어 남한과의 관계가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도 남한과의 관계는 절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정부와 수많은 단체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

⁷ 전봉근, p. 223.

북한 핵 문제의 이해와 전망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8월 27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영변 핵 단지 내 5MWe 원자로 재가동 사실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9월 16일 미국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CNN 인터뷰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시설을 확장하는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이는 대략 1,000㎥로 원심분리기 1,000대를 수용하기에 충분한 공간”이라고 주장했다.¹ 북한은 9월 11~12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2발(사거리 1,500km)을 발사한 데 이어, 9월 15일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탄도미사일 2발을 열차에서 발사해 800km 표적을 명중시켰다고 발표했다. 2019년 이후 북한은 남한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번 발사는 그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11월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발사 이후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바 있다. 2018년 이후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벌였던 북한은 협상 기간 중은 물론, 그 이후에도 핵무력 강화를 잠시도 멈추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북한 핵 개발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행위인 동시에 한반도와 국제평화를 파괴하는 위협요인이다. 그 내면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북한 핵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지? 주로 군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전망하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북한 정권이 핵 개발에 매달리는 이유는?

첫째, 북한 핵 개발의 근본 목적은 대남적 화전락목표 달성에 있다. 이 전략은 분단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6.25 남침도 그 연장선이었다. 그들은 대남적화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남군사력의 우위를 유지해야 하는데, 1970년대 이후 경제력 역전에 따라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우위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핵 개발을 결심한 것이다.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에는 핵 개발 모호성 전략을 유지하면서 은밀하게 핵을 개발했다면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는 보란 듯이 핵 개발에 몰입했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것이다.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하 김정은)은 전술핵과 핵추진 잠수함 등 핵 무력 강화를 통해 통일을 앞당기자고 주장한 바도 있다. 북한이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는 이유는 핵탄두를 원하는 목표에 기습적으로 실어 보내기 위한 것이다. 즉, 핵탄두와 미사일 개발은 핵 개발의 한 몸통으로 보면 된다.

둘째, 한미동맹을 파괴하기 위한 전략의 연장선이다. 1949년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이듬해 1950년 애치슨라인 선포로 미국은 남한을 버렸다고 판단한 김일성은 소련과 중공의 승인을 받아 6.25 기습남침을 결행했다. 하지만 미국은 유엔안보리를 통해 신속히 개입했고 김일성은 중공의 도움을 받았으나 결국 대남적화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

6.25 남침 전쟁은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의 산파역이 된 셈이다. 이후 와신상담하면서 제2의 6.25 남침 기회를 노린 김일성에게 주한미군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미군을 내쫓아야 자기들의 대남전략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북한 핵을 미국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자기들의 핵 개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으로 인한 자위적 조치라면서 미국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따라서 자기들에게 핵 포기를 요구하기 전에 미국이 먼저 대북 적대시정책을 포기하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대북 적대시 정책이란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연습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² 따라서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맺고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연습을 영구 중단하면 핵 포기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셋째, 김정은의 일인 지배체제를 조기에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2011년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물려받은 김정은은 핵·미사일 역량 강화에 주력했다.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군사력을 강화하여 강력한 군사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구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판단한 것이다. 결국 네 차례의 핵실험과³ 100회가 넘는 미

1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917500186&wlog_tag3=naver 검색일 : 2021. 9.20.

2 주한미군은 북침을 위해 주둔하는 것이고, 한미연합연습은 북침 핵전쟁연습이기에 자기들은 두려워서 부득이 핵을 개발했다는 논리를 강변하는 것이다.

3 북한은 김정일 생존시 2006년에 1차, 2009년에 2차 핵실험을 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2013년에 3차, 2016년에는 4



〈북한은 올 8월 한미연합훈련 실시에 대해 맹비난하고, 이를 명목으로 13개월만에 북원연락선을 다시 단절하였다. 사진은 지난 2016년 한미연합사단 공병대대 훈련 후 기념사진모습 (육군=서울신문)〉

사일 발사로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이를 자신의 최고 업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2020년 10월 당 창건 75주년에 개최한 심야 열병식과 올해 1월 8차 당대회 축하 심야 열병식 또한 김정은의 업적인 핵 무력 선전의 장이 된 것이다.

북한 주장대로 핵 개발은 자위(自衛)용이고 정당한 것인가?

북한은 미국과 한국이 끊임없이 북침 위협을 했기에 자위적 차원에서 핵 개발을 했다고 강변한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인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먼저 공격한 일이 있는가?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미는 연례적으로 연합연습을 진행해 왔는데 동 연습은 방어 위

주로 전개된다. 오히려 북한이 지금까지 수많은 대미,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했다. 미국을 향해서는, 1968년 정상적인 첩보수집활동을 하고 있던 푸에블로호를 불법 납치하여 승무원을 1년여 감금했고 함정은 반환하지 않았다. 1969년 미국의 정보기 EC-121기를 격추한 일도 있다. 1976년 8월 18일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정상적인 작업을 진행하던 미군 장교 2명을 도끼로 살해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지 않았다. 한국을 향한 대표적인 도발을 살펴보면, 1968년 1.21 청와대 기습미수사건과 울진삼척무장공비 침투, 1974년 육영수여사 총격사망, 1983년 버마 아웅산 묘소 폭파, 1987년 KAL-858기 폭파, 1999년과 2002년 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 2015년 목함지뢰 도발, 그리고 2020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및 우리 국민 총격 도발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하지만 한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은 했지만 먼저 공격한 일은 없다. 결국, 북한의 북침 위협 운운하는 주장은 자기들의 핵개발을 정당화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기만전술일 뿐이다. 현재 북한을 공격할 나라가 어디인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물론 아니다.

문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점이다. 북한은 NPT에 가입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원자로를 제공 받으면서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IAEA와 안전협정 체결을 지연시키다가 뒤늦게 체결한 후 이루어진 사찰과정에서 몰래 핵을 개발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자 NPT 탈퇴 등 강수를 두면서 1차 핵 위기가 발생했다. 이후 1994년 미국과 타결한 제네바합의(AF)에 따라 경수로와 중유지원 조건으로 핵동결을 했다. 하지만 북한은 몰래 농축우라늄 개발을 시도한 사실이 2002년 들통이 나면서 AF는 파기되었다. 이후 중국이 주도하는 6자회담 9.19 성명 등 비



〈북한이 공개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당시 모습 (KBS)〉

핵화 약속을 했지만 이를 외면하고 핵 개발에 몰두했다. 결국 북한은 핵 개발을 위장하며 시간을 벌고, 경제적 이익을 챙기면서 국제사회를 기만해 온 것이다. 북한이 아무리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해도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유엔안보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핵 능력과 수준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협적인가?

핵무기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일본을 단숨에 항복하게 만들었다.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는 일본에 떨어진 탄두 위력보다 수십 또는 수백 배 그 위력이 커졌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1980년대 영변 핵시설의 5MWe 원자로를 가동한 후 현재까지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 50여kg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통해 고농축우라늄(HEU)도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⁴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21년 8차 당대회를 통해 전술핵무기 개발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실

4 플루토늄4~6kg으로 핵탄두 1발을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최소한 10발 이상의 플루토늄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농축우라늄탄은 그 은밀성 때문에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다.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에서 공개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 배치할 경우 우리에게 치명적인 위협이다. 아울러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을 비롯하여 노동미사일, 사거리 3,000km에 달하는 무수단 미사일을 배치하여 한반도는 물론, 주변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 2019년 이후에는 초대형 방사포, 대구경조종방사포,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에이태킴스 등 소위 단거리 미사일 4종 세트로 불리는 신형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의 요격을 회피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의 정밀화 고도화가 이어지고 있어 우리에게서 재앙적 위협이다.⁵ 다만, 2017년까지 이어진 화성-14, 15형 등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은 실거리 사격을 한 것이 아

니기에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기술 확보 여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0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ICBM과 북극성 4s으로 표기된 신형 SLBM 등 총 9종의 탄도미사일을 공개한 것으로 보아 북한이 언젠가 이를 발사하는 도발도 감행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 핵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우선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역량 강화에 매진할 것이다. 최근 북한판 이스칸데르 발사 직후 박정천 당비서는 무기개발 5개년계획에 따라 지속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공언한 바 있다. 다만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미국을 향한 반발은 하면서도 나름 그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과의 대

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으면서 미국을 향해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의 모든 대북협상을 평가하고 대북정책 재검토를 마친 후 북한을 향해 조건 없는 대화에 호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대화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북한은 스스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즉, 자발적인 핵 포기는 없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실 1990년대 이후 추진해 온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법은 사실상 실패했다. 2016년부터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대북 제재는 북한 태도 변화 유도에 일정부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중접근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 첫째는, 강력한 억제 및 응징역량을 강화하여 북핵을 무용화(無用化)⁶ 시켜야 한다.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 유럽에서 채택하고 있는 핵 공유협정이나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이다. 둘째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되 북한의 핵 포기를 강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북 제재의 효용성을 높이는 일이다. 유엔을 중

심으로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공조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북한 편에서 서서 두둔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일이다.

교회의 기도 제목 :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타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술핵무기 개발을 공언했다. 그리고 이를 남한 어디든 날려 보낼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그 대표적이다. 북한은 핵을 선제 사용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없다.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 실전배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위협은 한마디로 재앙이다. 물론, 우리에게서 공고한 한미동맹과 연합억제력이 있지만, 그 신뢰성을 높이고 억제 및 응징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둔감하다는 점이다.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주여!!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켜주소서. 🙏

〈외부필진의 의견은 본지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2021년 9월 11일~12일 북한은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이 7천580초(약2시간16분) 비행하여 1500km 목표물을 명중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새로 개발한 터빈송풍식 발동기 추진력과 미사일의 비행조종성, 유도 명중 정확성을 모두 만족시켰다고 주장했다. 순항미사일 특성상 사전탐지나 요격이 어렵고 만일 핵탄두 탑재시 매우 위협적으로 평가된다.

6 여기서 무용화전략이란, 핵을 가지고 있어도 결코 사용할 수 없고, 오히려 핵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내려놓지 않으면 안되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접근전략이라 할 것이다.

북한 핵 문제의 이해와 전망

유영식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북한 영변에서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또다시 관련 국가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2019년 2차 북미 회담이 별 성과없이 종결되고,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마저 결렬된 이후, 북한은 2019년 김정은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언급하고 12월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에서 정면돌파전을 선언한 바 있었으나, 핵실험 중단을 선언한 ‘2018년 모라토리엄’을 깨는 행보는 보이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은 주목할만한 신호이다.

사실,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핵무력의 고도화는 주변국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억제, 즉 자국의 주권과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자조(自助)와 생존권 보장을 위한 노력으로만 이해되지 않는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전력 증강은, 다차원적인 평가는 논외(論外)로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사회의 안보 불안정성을 심

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북한의 핵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안보질서와 국제체제의 안정성(stability)에 커다란 충격과 위협이 되는 쟁점이다. 북한은 외견상 공격적 행동은 자신들이 처한 대내외적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는 판단 하에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을 뿐, 현상을 변경하거나 팽창적인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거듭해서 밝혀왔다. 여기에 더해 2018년 신년사에서는 “평화를 사랑하는 책임 있는 핵강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 세력이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나라나 위협도 핵으로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마치 북한이 세계평화의 주역인 것처럼 ‘평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장을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사회의 평화의 조건이라고 보는 국가는 오직 북한뿐이다.

그럼, 북한은 왜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고도화하려고 하는 걸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단정하기는 생각만큼 쉽지 않다. 합리적 선택 관점에서 볼 때, 지속적인 핵능력 강화를 통해 북한은 자신들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선택은 대외적 압박과 경제제재, 국제적 고립 그리고 이미지 추락이라는 부정적 결과들을 누적시킬 뿐이다. 물론 북한이 이런 부정적 결과들을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핵능력 강화를 강행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의도의 악순환’이 아니라 ‘결과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북한은 2006년 제1차 핵실험 때, 계획한 이익보다 의도하지 않은 손실이 과다 발생하는 환경을 이미 경험했고, 이후 핵고도화를 거듭할수록 비용이 편익을 초과하는 결과들이 확대되고 점점 더 강화되는 현실을 충분히 학습했었다. 그렇다면, 북한은 최소한 손실이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만은 회피하는 선택을 해야 했지만, 너무도 뻔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핵능력 고도화에 집착했고,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는 ‘의도의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국제사회의 제재에다 코로나 팬데믹과 환경적 재난까지 더해지면서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카네만(Daniel Kahneman)과 트버스

키(Amos Tversky)는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을 통해 너무도 뻔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하게 되는, 즉 최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합리적 인간의 본성에 반(反)하는 행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결과는 대략 이렇다. 사람들은 불확실한(혹은 위험한) 상황 하에서는, 알고리즘 방식에 따라 결정하기보다는, 자신이 설정한 준거점을 기준으로 이익보다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회피하려고 한다. 그 때문에 현재의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status quo bias)이 더욱 강해진다. 그리고 이런 경향성에 의해 현재 상태를 변경하려는 외부의 힘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저항하려고 한다. ‘관성(inertia)’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사결정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손실과 이익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준거점인데, 준거점은 대부분 현 상태이지만, 기대하는 목표 또는 상태 등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다. 준거점 기준으로 자신들의 현 상태가 준거점 이하인 손실영역이 되면 위험을 감수하는 도발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이 전망이론의 주장이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전망이론의 핵심적인 논지를 간명하게 요약하면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은 대내적 상황이 불안정하거나 대외적 상황이 손실의 영역일 경우 위험을 감수하면서 군사적

〈표1〉

		대외적 상황		
		이익	손실	극단적 손실
대내적 상황	안정적	위험회피: 타협/유화정책	위험감수: 군사적 모험주의	위험회피: 타협/유화정책
	불안정적	위험감수/위험회피: 군사적 모험주의 또는 타협/유화정책	매우 위험감수: 극단적 군사적 모험주의	초 위험감수: 초 극단적 군사적 모험주의

모험주의, 즉 핵무력 증강을 선택하게 된다. 대내외적 상황이 손실인지 이익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점은 크게 3가지이다. 흔히 국가 이익으로 불리는 준거점은 안보와 경제, 그리고 국가정체성이다. 통상적으로 국가이익이라는 것이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우선순위가 변하기도 하고 내용과 강도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국가안보와 체제유지는 한 국가의 생존 문제로써 존망의 이익이 되며 어느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우선권을 가진다. 국가안보와 체제유지는 협상과 타협의 여지가 거의 없는 최우선의 국가이익이다. 그리고 경제적 번영과 자국의 가치 증진, 호의적이고 유리한 국제질서의 창출 등은 핵심적 이익으로서 국가가 처한 상황변화에 따라 대외정책에서 그 우선순위와 강도를 달리하기도 한다. 북한 핵문제는 이 3가지 국가이익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의 보장과 안전을 유지하고, 인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적 이익과 경제협력의 도움을 얻고자 한다. 또한 자주성을 견지하고 체제의 정당성 획득과 우위를 확보하여 자신들의 차별성을 국제사회에서 인

정받음으로써 국가적 위신(존엄과 위용)을 높이려고 한다. 북한으로서는 3가지 국가이익을 준거점으로 하여 현 상태나 기대수준이 이익영역인지 혹은 손실영역인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북한이 3가지 준거점을 손실로 인식하면 손실을 회피하고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핵실험 등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 가지 눈여겨 볼 것은, 김정은이 보여주고 있는 공격적 행태이다. 북한은 2013년 제3차 핵실험 이후 이전과 달리 아주 공세적이고 모험적으로, 호전적으로 바뀌었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 제대로 된 값을 쳐주면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거나 국제사회가 총체적으로 압박하면 포기할 것이라는 예측은 모두 빗나갔고, 강도 높게 밀어붙이면 결국은 고개를 숙이고 나올 것이라거나 경제적 이익으로 유혹하면 선부른 도발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모두 어긋났다. 과거 핵이 미국으로부터 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협상용이었다면 김정은에게 이제 핵은 보유용으로 무게중심이 확실히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행태는 아들러(Alfred Adler)가 언급했

던 ‘권력에 대한 의지(will to power)’, ‘힘에 대한 갈망(desire for power)’, ‘우월의 의지(striving for superiority)’의 한 단면이다.

북한 핵문제는 어떻게 될까? 1993년 3월 북한이 NPT에서 탈퇴를 선언한 이후 28년이 된 지금 북한의 핵능력은 엄청난 수준으로 고도화되었다. 2017년 11월 국가핵무력 완성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한 바 있고, 2021년 9월에는 영변 핵물질 생산시설 증설 정황에 이어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과 철도기동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과 국제사회의 제재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 28년은 각 행위자들 간의 선(先)행동을 둘러싼 시퀀스의 문제가 충돌하고 이는 상호간의 불신을 심화시켰다. 즉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선 비핵화, 후 대화’ 방식을, 북한은 ‘선 대화, 후 비핵화’ 방식을 고집하는, 길고 지루하며 어려운 과정이다. ‘오바마 2.0’으로 보이는 듯한 미 바이든 행정부도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어 왔지만, 전망이론(prospect theory) 관점에서 볼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북한의 현 국내적 정치상황이 안정적이라고 전제했을 때, 북한의 대외적 환경이 이익영역에 있도록 하는 방법과 최악의 경우 북한을 극단적 손실영역에



〈김정은 정권 들어서 북한은 공세적으로 핵개발에 나서왔다. 사진은 2017년 김정은 위원장의 핵무기병기화 사업 현지지도 모습. 장구 형태의 핵폭발장치로 보이는 물체와 함께 왼쪽 위엔 ‘화성-14’형 핵탄두(수소탄)라고 쓰인 도면이 보인다.〉

있도록 해야 한다.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이익의 영역에 위치하도록 보상·타협하는 방법은 북핵 위기 28년이 말해 주듯이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핵고도화를 하도록 간접적으로 돕는 셈이었다는 부정적 평가가 너무 강하다. 북한에게 이익의 영역에 있도록 하는 방법은 결국 북한에게 핵개발을 위한 시간별기를 도와주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협상을 통한 확산’, 즉 밖으로는 협상을 하지만 안으로는 계속적으로 핵을 확산해 왔던 전력(前歷)이 있고, 국제사회가 이런 과거의 사실에 대한 불신이 깊어 북한에 대한 더 이상의 ‘퍼주는 식’의 지원을 기피할 수 있다.

그 다음은, 극단적 손실(catastrophic losses)의 상황에 놓일 때의 강제적인 방법이 있다. 북한지도부는 정권이 붕괴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논

리적으로 볼 때는 이 강제적인 방안이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을 극단적인 손실영역에 위치하도록 하는 방법은 중국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대(對)중국 압박을 계속하고 있기는 하나, 미국 역시 미중관계가 파열될 수 있는 대안을 강행할지도 미지수이다. 미국의 한반도정책이 미중관계의 종속변수적 성격을 띠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에게 극단적 손실을 주는 방법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분명하다. 제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사드 배치로 인한 주변국들의 갈등사태는 이런 역학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남한의 독자적 핵무장을 통해 북한정권 붕괴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북한지도부에게 극단적 손실을 인식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남한의 독자적 핵무장은 북한의 핵능력 우위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다. 하지만, 남한의 독자적 핵무장은 주변국의 안보딜레마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남한정부가 NPT를 탈퇴해야 하는 엄청난 정치적 부담과 후행(後行)하는 경제적 파장이 예상된다. 그럼 미국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제한적 대북타격 방안은 어떤가? 이 방안은 북한의 핵이나 군사 관련 시설물이 아니라 상징적 시설 한 두 곳을 정밀 타격한다는 계획이다. 타격으로 인한 피해 규모보다는 심리적인 공포심을 각

인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만약 이 방안대로 한다면 북한은 ‘이판사판(double or nothing)’ 식의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실 미국도 유럽과 중동문제, 특히 아프간 철수에 따른 후속조치 등으로 한반도에서 전쟁판을 벌여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때문에 전망이론의 관점에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하나뿐이다. 북한지도부의 기대치(reference point)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일이다. 기대치 수준을 낮추어서 북한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현 상태와 기대수준이 최대 이익영역은 아니더라도 동시에 최소 손실영역도 아니라고 인식하도록 하는 방안이 최선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과 주변국들이 보여준 행태로 보자면, 현실적인 기대치 조정이 포지티브섬(positive-sum)이 아닌 제로섬(zero-sum) 게임으로 귀착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을 포함하여 주변국 모두가 예비적으로 조정된 기대치를 자국의 손실로 인식한다면 최종 조정은 실패한다.

특히 남한과 미국의 기대치가 ‘북한의 비핵화’로 규정된다면 현실적인 조정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북핵이라는 몸값(ransom)은 이미 부르는 게 값이 되어 버렸다. 흥정을 하더라도 핵 위자료가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상승한 작금의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더욱이 북한으

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옵션이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확고한 목표이다. 그리고 북한은 자신들의 핵실험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에 기인한 것이며, 미국의 핵선제공격에 대한 자위적 차원에서 강행했다고 매번 주장해왔다. 북한의 의례적 표현으로는 “우리가 지금 핵무기의 타격능력을 더욱 높이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침략과 전쟁을 억제하는 힘을 강화하고 그것으로 조선반도에 들쭉날쭉 핵전쟁의 참화를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액면그대로의 진실이라면,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핵선제공격 위협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논리이므로 기대치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인 수준에서의 기대치 조정으로 북한의 합리적 관심사항인 안보우려를 해소하게 된다면, 북한이 생각하는 최종 목표인 체제의 안정이 보장되고 미래에도 안전하다고 여기게 된다면 북한의 핵고도화를 현재 단계에서 종결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평화체제 논의가 북한의 비핵화 대안으로 부각될 수도 있다.

국제정치에서 핵은 폭발이 아닌 존재만으로 이미 그 효용을 발휘하는 특수한 무기인 동시에 전술이 아닌 전략적 차원의 모든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핵의 위험성과 특수성을 생각한다면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관련국들이 만나서 현실적인 기대치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사진은 2018년 제 1차 북미정상회담 모습 (조선중앙통신)〉

핵을 가지고 있을 경우,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판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동시에 핵은 ‘다모클레스의 칼(sword of damocles)’과도 같다. 그 칼이 누구의 머리 위에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국들이 상대방을 자신들의 대척점에 두기보다 일단 만나서 현실적인 기대치 조정을 서둘러야 할 이유도 이 때문이다. 🐼

〈외부 필진의 의견은 본지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탈 북 민 수 기

꿈 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복음의 푸른 꿈이 다시 돌아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월남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추방당한 부모 밑에서 자란 탈북민 자매님을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출신 성분의 낙인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희망 없는 그곳에서 꿈을 찾아 해매었던 굴곡진 삶을 회고하는 고백을 통해 다시금 그 땅을 위한 기도의 필요를 느낍니다. 이제는 자유를 누리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매님의 이야기가 독자에게도 전해지길 바라며 그 내용을 정리하여 지면을 통해 나눕니다. -편집자 주

꿈을 가질 수 없는 추방자의 가족으로

공산주의 혁명과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가장 계급 구조가 철저하고 차별이 만연한 국가인 북한... 나는 그곳에서 추방자 가족의 딸로 태어났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배경이 좋지 못했다. 아버지의 할아버지는 황해도의 지주였고 상당한 부자였다. 그렇지만 부르주아 딱지가 붙은 우리 가문의 앞날은 어둡기만 했다. 한국 전쟁 당시 남과 북의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미군이 우리 지역으로 진주했을 때 친척 중 해외 유학을 다녀온 분이 있어서 통역을 했다. 하지만 미군은 곧 남쪽으로 후퇴했고 다시 인민군이 마을로 진주해왔다. 적군의 통역으로 활동한 친족이 있으니 우리 집안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다. 거동이 가능한 사람들은 급하게 피난을 떠났다. 다만 증조할아버지와 증조할머니께서는 손주들을 돌보

시면서 집을 지키시겠다고 하셨다. 잠깐만 버티면 지나갈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소중한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또 피난길에 짐이 되기를 원치 않으셔서 취한 선택이셨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가족의 영원한 이별이 되고야 말았다. 증조할아버지를 비롯한 남아있던 가족은 집과 재산을 다 빼앗기고 북쪽 산악지역으로 추방되었다. 그렇게 아버지는 산간 오지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의지하여 살게 되었다. 북한의 연좌제는 무시무시하다. 가족 안에서 정치적 성향이 다 같을 수 없는 일인데 이름도 모르고 촌수를 따지기 어려운 먼 친척의 행적이 나에게 별로 매겨진다는 사실은 언제나 끔찍하다.

어머니도 추방자 가족 출신이었다. 어머니는 어릴 적에는 평양에서 지내셨다고 한다. 그러나 무슨 연고인지 온 가족이 북쪽으로 추방을 당했다. 시간이 흘러 장성한 아버지는 운전 일을 배워서 도시로 나오셨고 어머니도 성인이 되어 일을

찾아 산골을 벗어나 인근 도시로 나오셨다. 그렇게 두 분이 서로 만나 가정을 꾸리셨고, 그 사이에서 내가 태어났다.

나는 어릴 적에는 이런 나의 성분과 배경을 잘 알지 못했다. 그저 하고 싶은 것이 많은 꿈 많은 소녀였다. 문학 작품을 탐독하다가 기사를 꿈꾸기도 했고, 비행기 타고 먼 나라도 가보고 싶다는 꿈을 꾸었다. 하지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해외를 가볼 방법이 없었다. 그러다가 국가대표가 되면 국제경기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처음에는 글을 통해 국가대표가 되겠노라고 결심하고 열심히 글을 썼다. 글짓기로 지역 대회에 나가서 입상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런 정도로는 내가 바라는 바를 채울 수 없었다. 다른 방법을 찾다가 사격으로 눈을 돌렸다. 몇몇 대회에 출전했고 상당히 좋은 기록이 나와서 팀에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계속 나아가간다면 좋은 성과를 거두고 내가 꿈꾸던 목표까지도 달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아버지는 나의 진로를 반대하셨다. 무슨 이유일까? 아버지께서 무턱대고 그냥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느껴지긴 했지만 내가 꿈꿔온 삶을 향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꼴이니 억울하고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아버지는 나를 불러서 어렵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셨다. 나의 배경, 나의 토대가 문제였다. 추방당한 월남자 가족에게 내가 꿈꾸는 기회 같은 것은 어차피 오지 않을 것이기에 아버지께서는 내가 애쓰다가 상처받고 고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를 말리신 것이었다. 내가 잘못된 것도 없는데 이미 나는 낙인이 찍힌,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아버지의 이야

기를 들으며 나는 단순히 속상하다는 감정을 넘어 내가 사는 나라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다. 그때부터 나는 기회만 되면 이곳을 떠나리라 마음먹었다.

탈출의 여정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북쪽으로 추방을 당한 것이 축복이 되는 시기가 왔다. 대기근이 나라를 덮친 것이다. 많은 이들이 굶주리고 죽음에까지 이르렀다. 다행히 우리는 국경이 가까워 어떻게든 살 방도를 찾을 수 있었다. 추방당한 것이 단순히 저주와 벌인 것만은 아니구나 생각했다.

나는 결혼했고 북한의 여성들이 대체로 그러하듯 생계를 위해 어머니를 따라 장사를 시작했다. 중국과 북한 내륙 사이에서 중간 무역을 하는 것인데 장사가 상당히 잘 되었다. 장사를 하다보니 이곳저곳 다녔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다. 우리가 중국의 식민지가 된 것 같았다. 아무리 비싼 약초나 금속이라도 중국이 안사주면 팔 곳이 없으니 혈값에 석탄이고 약초고 금속이고 팔려나가는 것을 보았다.

오랜 시간 장사를 하면서 삶은 안정되었지만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도 점점 더 커져갔다. 마침내 강을 건너기로 마음을 먹었다. 첫 시도는 실패였다. 김정일이 죽으면서 경비가 너무 삼엄해졌다. 한참을 기다렸다가 다시 탈북을 시도했다. 이번 시도도 실패였다. 강은 건넜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붙잡히고 말았다. 다행히 중국에는 일자리 구하러 왔다고, 동생 공부시키려는데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사정했더니 내 모습이 딱



〈중국-라오스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 (조선닷컴)〉

했던지 나를 잡아가지 않고 밤에 북한으로 놓아 주었다. 감옥으로 끌려가지 않고 강제 북송 행렬에 끼지 않은 것만으로도 기적이었다.

그래도 나는 멈출 수가 없었다. 다시 탈북을 시도했고 이번에는 탈출에 성공했다. 물론 탈출만 성공했을 뿐, 나는 여느 다른 북한 여성들이 당했듯 시골로 팔려갔다. 그 마을에는 북한 여자가 많았다. 심지어 앞집 여자애도 팔려온 친구였다. 나의 목표는 한국까지 가는 것이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처음에는 강제로 팔려서 결혼했으니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의 아기는 가지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나를 산 집에서는 돈을 쓴 만큼 나를 엄중하게 감시했다. 게다가 시골 동네 자체가 씨족사회 같아서 마을 사람 대부분이 친척이었다. 그러다보니 내가 집 밖으로 조금만 돌아다녀도 이웃들의 눈에 띄고 바로 파악이 되었다.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그들이 원하는 아이를 낳아주는 것, 그것이 안되면 최소한의 자유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아이를 낳았고 그제서야 조금이나마 움직임이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나의 한국행에는 더 큰 짐이 생겼다. 내 아이를 낳아놓고 보니 이 아이를 중국의 시골 강촌에서 어미 없이 자라게 둘

수 없다는 마음이 굴뚝같았다. 결국 이 아이도 데리고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한국으로 가기란 여간 어렵지 않았지만 나는 어찌어찌 브로커와 연결되어 한국행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집 밖으로 발을 옮기는 것 자체가 난관이었다. 특히 아기를 데리고 어디를 가려고 하면 꼭 할머니가 같이 동행했다. ‘뭐라고 둘러대고 아이와 함께 집을 나설 수 있을까?’ 밤을 꼬박 새며 고민했지만 마땅한 방안이 생각나지 않았다. 점점 시간이 흐르고 브로커와 만나기로 약속한 날짜도 점점 다가와 바로 내일이 그 날이 되었다. 또다시 이렇게 기회를 놓치는 것인가? 나는 영영 팔려온 신세로 이 집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인가? 숨이 막히고 가슴이 갑갑하게 조여오든 듯했다. 그때 갑자기 입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오랜 시간 고대했던 한국행이 실패할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처님도 신령님도 아닌 하나님을 찾았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신기한 일이다. 하지만 그 부르짖음에 어떤 응답이 있었는지 신비롭게도 그날 저녁 늦게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이들 예방접종이 있으니 병원을 다녀오라는 것

이었다. 집 밖을 나갈 방법이 전혀 없었는데 일단 나갈 구실이 생겼다. 게다가 병원에 가기로 한 날이 되자 날씨가 흐려지더니 아침부터 비가 쏟아졌다. 길도 지저분하고 불편하니 할머니는 집에 계시라고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아이와 함께 집을 빠져나왔다. 그렇게 나는 한국을 향한 탈출 길을 출발할 수 있었다.

막막한 상황에서 신비한 응답을 경험한 덕분에 일까? 나는 탈출의 여정 속에서 익숙지 않은 기도를 중얼거렸다. 딱히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는 내 처지이니 비록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제대로 모르는 나였지만 그저 내 처지를 호소하며 그 분께 기도를 드릴 따름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남쪽으로 이동하였고, 마침내 동남아와 중국의 국경지대에 도착했다. 국경을 넘는 일도 보통 고역이 아니었다. 특히 아기들이 문제였다. 일행 중에는 백 일이 채 되지 않은 아이를 업고 온 애 엄마가 있었는데 아기가 수시로 울어대서 너무 위험했다. 그간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없는 탈북자들이 많았는지 중국 남방에는 이런 탈북자 아기를 입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문득 얼마나 많은 탈북자들이 생존을 위해 아기를 포기해야 했을지 생각하니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 비극적이고 참담했다. 이 엄마도 잘못하면 모두가 위험하겠단 싶어서 입양을 시키려고 했지만 어찌 그것이 쉽게 되겠는가? 그래도 어떻게든 아기를 데려가 보자고 함께 격려했다. 그러면서 아기를 재워보려고 수면제를 좀 먹여도 보았지만 아기는 여전히 눈이 말뚱말뚱 했다. 불안한 마음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드디어 국경 근처에 다다랐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국경을 넘는 그 순간이 되자 아기가 울지 않고 잠전해졌다. 그렇게 우

리는 감사하게도 무사히 국경을 넘을 수 있었다.

그렇게 복잡한 여정을 겪으며 나는 드디어 태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한국에 가는 것도 기뻐지만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꿈에 그리던 비행기를 탄다는 것이 꿈만 같았다. 인천 공항에 착륙하니 그 곳에 펼쳐진 파란 하늘과 구름의 풍경이 마치 소설 속의 풍경 같아 눈물이 났다.

북한에서 발견했던 하나님의 소식

북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듣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오히려 반기독교 교육이 철저한 곳이 북한이다. 학창시절 교과서에는 미국인 선교사의 탈을 쓰고 피 빨아먹는 승냥이처럼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책 내용만 보고 선교사는 모두 미국인인 줄로만 알았다.

하루는 여기 말로 백과사전과 유사한 전집을 열심히 읽었다. 북한 외에 다른 내용도 많이 담고 있었던 그 책에서 나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예수가 태어난 해를 기점으로” 년도를 정한다는 대목을 읽었다. ‘우리는 주체 연도를 쓰는데 왜 다른 나라는 예수가 탄생한 것을 기점으로 해를 정하는 걸까?’, ‘예수도 수령님 같은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호기심과 궁금증이 생겼다. 예수님에 대해 처음으로 접했던 순간이었다.

성경에 대해서는 내용은 몰랐지만 그런 책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좋은 일로 알게 된 것은 아니고 그 책을 소지했다가 발각되어 인민반 회의를 거쳐 보위부로 잡혀간 사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저게 무슨 책임데 사람을 그렇게 잡아가는가’ 하고 생각했다.



어릴 적부터 탈북을 꿈꾸었던 나는 청소년 시절부터 한국 라디오를 많이 들었다. 들기면 큰일이지만 KBS, 자유북한방송, 미국의 소리 방송 등 북한을 대상으로 한 단파 및 중파 라디오 방송을 요리조리 주파수를 맞춰가며 용감하게도 들었다. 들었던 내용 중 기억나는 것 중에 과거로 동신문 기자였던 사람이 탈북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방송을 들으며 “아... 그 사람은 어떻게 한국에 갔을까? 서울은 어떤 곳일까?”하는 생각을 했다. 그때는 무슨 노래인지 잘 몰랐지만 방송에서는 종종 찬송가도 흘러나왔다. 탈북해서도 라디오를 즐겨 들었다. 중국에서는 마음 놓고 들을 수 있었으니 밤새 앉아서 라디오를 들었다. 늦은 밤 사방이 조용할 때 듣는 방송은 꿀을 수 없는 취미였다.

북한에서 떠나오기 전에는 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보기도 했다. 북한에서는 점치는 일이 불법이지만 암암리에 이러한 미신이 많이 퍼져 있었다. 그런데 점을 보러 간 그 집의 아들이 나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 친구는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종종 점을 쳐주기도 했던 친구였는데 몸이 불편해서 집 밖에 잘 나오지 못했다. 그 친구는 이어서 “통일이 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둥 도통 이해하지 못할 말을 이어갔다. 그

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

무사히 국경을 넘어 태국에 도착해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를 챙겨주시던 목사님께서 작은 수첩을 나눠주셨다. 그 책을 읽어 예수님에 대해 적혀있는 쪽복음이었다. 그 책자를 읽으면서 나는 드디어 내가 어릴 적 궁금해 했던, 나라들의 년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분인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었다.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게 북한에 들어가서 퍼지던 사람들의 사상에 변화가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배도 함께 드렸다. 예배의 분위기, 기도의 분위기, 그 속에서 느껴지는 영적인 분위기에서 숨었던 감정을 느꼈다. 북한에서 김 씨 일가에게 했던, 인간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었다.

생각해보면 전혀 복음을 들을 수 없고, 오히려 반기독교적 교육이 압도적인 북한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해 여러 모양으로 듣거나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 그 당시에는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양한 채널로 복음을 북한에 전파하고 계셨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수고하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그렇게 신앙을 가지게 되고 하나원에서,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신앙을 가지면서 특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작아지는 것을 느낀다. 사람이 다들 그렇겠지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다. 특히 일생 동안 많은 죽음을 보아왔고, 실제로 죽음의 능선을 맞닥뜨렸던 경험을 한 사람들이 바로 나를 포함한 우리 탈북 형제자매

들이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는 죽을 때 평안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든다. 죽는 건 바로 하나님 곁에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는 경우는 다양할 것이다. 아파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극한의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찌 보면 상상만으로도 두려운 그런 것들이 이제는 좀 더 편안하게 다가오고 두려움이 없어진다. 죽음은 끝이 아닌, 하나님 뜻을 따라 내가 그곳으로 가는 것이니까.

한국에서의 삶과 나의 기도

정착하면서 다른 탈북자를 만나 새롭게 가정을 꾸렸다. 신앙은 군인 생활을 오래했다 보니 아직도 그쪽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요즘에 사람이 바뀌고 있다. 원래 신앙이 없던 사람인데 나와 함께 교회에 다니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톺툼히 읽고, 일 하러 갈 때도 성경책을 가지고 다닌다. 내가 신랑에게 성경 이야기,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리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를 통해 남편이 믿음에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 남편과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분이 있었다. 그런데 이분을 위해 어떤 목사님께서 술에 대한 성경말씀을 집에 붙여주셨는데, 그 후로 한 달 동안 술을 먹지 않았다는 것이다. 옆에서 이 과정을 지켜본 남편은 너무 신기해서 그 분 집을 직접 방문했다. 그리고 벽에 붙은 성경 글귀들을 읽어보았는데, 그 구절들이 너무 명언이고 신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남편은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말씀을 읽

기 시작하면서 남편의 급했던 성격이 점점 차분해지고 신앙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특별한 기적은 아니지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다.

그간 여러 어려운 일들을 겪었으니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긴다. 그렇지만 원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도적같이 찾아오고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들기도 한다. 나에게도 그런 고통이 찾아왔다. 북에 남아있던 가족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동생이 탈북을 계획하다가 발각되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고, 어머니도 충격에 돌아가지고 만 것이다. 그 소식을 후에 들은 나는 너무 허탈하고 큰 충격에 휩싸여 한 동안 삶의 의욕을 잃었다. 이곳에서 만난 좋은 형제자매들과 지금의 가족이 없었다면 나는 회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도 잡혀간 동생을 위해, 혹시나 살아있기를 바라며 기도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는 이러한 비극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억압과 폭력 속에 신음하는, 악한 우상숭배가 강제되는, 고통 받는 2천만 북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 사람들을 악에서 구원하시도록... 그 불가능하다 여겨지는 곳에서도 나에게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긴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땅의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나누시고 또 자기를 찾는 이를 만나주고 계시리라 믿는다. 남한의 더 많은 성도들이 지금 철조망 너머 벌어지고 있는 비극을 생각하고, 또 그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통일의 그 날도 곧 다가올 것이다. 🙏

+ 문 대통령 종전선언 제안에 북한 연이은 긍정 담화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뒤 이번에는 선언 주체를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종전선언 언급에 대해 임기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또 이를 위해 정상 간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려 한다는 분석과 함께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나 핵시설 가동 재개 등과 관련한 언급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번 기조연설에 대해 관련국은 대체로 원론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미국은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에 열려 있지만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이며 북한이 대화에 나서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한국의 종전 노력을 지지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북한은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초기에는 "시기상조"이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철폐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후 9월 24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남측이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관계 회복을 논의할 용의까지 있다고 밝혔다. 이어 9월 25일에는 김여정 부부장의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발표한 담화를 통해 남북 간 상호존중이 유지되면 종전선언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는 물론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까지 언급하였다. 김 부부장이 '개인적 견해'임을 못 박긴 했지만, 문 대통령 임기 말 남북 관계의 급진전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주목된다. <참고: 언론보도 종합> 

+ 북한, 열차서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날 한국, SLBM 잠수함 발사시험 세계 7번째 성공




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이들 미사일은 고도 60여km로 800km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3월 25일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북한이 9월 15일 열차를 이용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해당 발사가 철도기동대미사일연대의 훈련이었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참한 가운데 정치국 상무위원인 박정천 당 비서가 훈련을 지도했다.

이날 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지난 3월에 발사했던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열차에서 발사되면서 화염과 연기가 열차와 그 주위를 휩싸는 모습이 보인다. 철도기동미사일연대는 올해 조직된 것으로 북한이 이 부대의 훈련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5일 북한이 낮 12시 34분과 12시 39분경 평안남도 양덕 일대

한편 같은 날(15일) 한국이 독자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잠수함 발사시험이 처음으로 성공했다. SLBM은 지난 8월 13일 해군에 인도된 도산안창호함(3천t급)에 탑재돼 수중에서 발사됐으며, 계획된 사거리를 비행해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SLBM은 잠수함에서 은밀하게 운용할 수 있으므로 전략적 가치가 높은 전력으로 평가된다.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만 운용하고 있는 무기체계로, 한국이 세계 7번째 SLBM 운용국이 됐다. 북한은 아직 잠수함에서 직접 SLBM을 시험 발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 언론보도 종합> 

+ 월스트리트저널, “중국 방해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운영 파행”



〈다큐멘터리 영화 '내부첩자' (The Mole)의 포스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제재위원회가 중국의 방해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월 15일(현지 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WSJ은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 초안을 입수했다며 보고서에 북한이 페이퍼컴퍼니(실체가 없는 서류상 기업), 선박 위장 등의 수법으로 제재를 계속 회피하고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강화를 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보고서에 담긴 조사 결과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등 대북제재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대북제재위 전문가들은 중국 영해에서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 물었다. 그러나 중국 측은 북한에 연료를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이 작년부터 중국 항구에 들어오지 않았다고만 답했다.

중국은 덴마크의 영화감독 매즈 브루저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내부첩자'(the Mole)

에서 나타난 북한의 제재 위반 개연성에 대한 조사를 거부했다. 브루저 감독이 3년에 걸친 함정취재의 결실이라고 밝힌 이 영화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무기상들이 만나는 장면이 몰래 촬영된 것으로 나온다. 유엔 중국대표부는 보고서 초안에서 이 영화가 불법적 수단으로 제작된 것으로 의심되고 신뢰할만한 정보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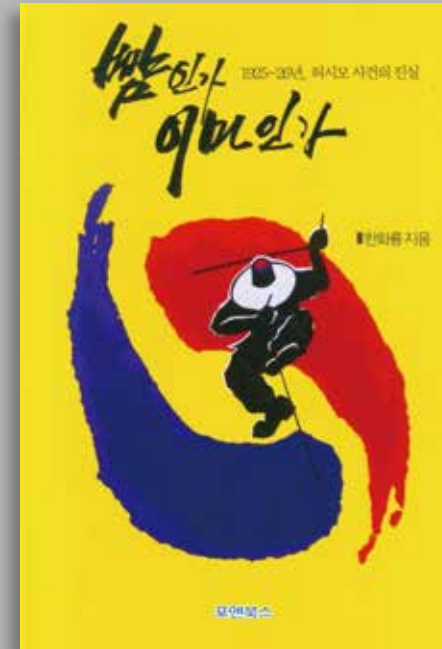
중국은 보고서에서 북한과 중국 대학들의 학술 교류에 관한 질의에 '그런 활동은 금지됐다'고 반박한 뒤 대북제재위가 대학에 관련 질문을 보내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대북제재위에서 활동하는 중국 외교부 관리 리샹핑은 보고서에서 대북제재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만 표기를 문제 삼았다. 그는 각주에서 대만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회사 이름을 언급할 때 '중국 대만 지구'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WSJ은 중국이 대북제재위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일련의 상황으로 분석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대북제재위의 조정관으로 활동한 휴 그리피스는 중국의 대북제재위 방해가 근시안적이라며 대북 제재와 관련해 "이것은 단지 미국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고: 연합뉴스, 9월 16일〉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목: 뽀임가 이마인가 1925-26년, 헤시오 사건의 진실
저자: 한화룡
출판사: 포앤박스
발행일: 2021년 7월 27일
가격: 12,000원

선교사 후보생들의 필독서중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이 있다. 서구출신의 한 선교사가 정글 오지에서 자신들의 파인애플 열매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온전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이야기이다. 그 책에서 주인공은 오지에서 파인애플을 먹기 위해 파인애플 나무를 심었고 오랜 기다림 끝에 첫 수확의 때를 맞이한다. 그러나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모두 서리해가고 선교사는 원주민들에 대한 분노로 가득찬다. 이후로 선교사는 파인애플을 지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쓰고 원주민들 역시 온갖 핑계를 대며 파인애플 서리를 멈추지 않는다. 각고의 노력 끝에 선교사는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이 있는 자신 의집 정원에 열선도 못하게 하는데 성공한다. 그

러나 정작 원주민이 열선도 안하게 된 후 선교사는 자신의 행동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깨닫는다.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원주민이 있는 오지로 간 선교사가 그깟 파인애플 때문에 원주민과 척을 지게 된 모순적인 현실을 직시한 것이다. 이후로 선교사는 마음을 돌이켜 온전한 헌신으로 나가게 된다는 해피엔딩으로 이야기는 끝난다. 이 이야기는 네덜란드 출신의 오토 코닝(Otto Koning) 선교사가 1970년대 인도네시아 뉴기니섬에서의 사역에서 얻은 깨달음을 책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 “파인애플 스토리”와 매우 유사하지만 훨씬 더 파격적이고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이미 50년이 앞선 1920년대 일제치하의 조선에서 벌어졌다. “파인

애플 스토리”는 놀라운 은혜와 사역의 열매로 막을 내리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사과를 둘러싸고 벌어진 “애플 스토리”는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

이 “애플 스토리”의 주인공은 미국인 의료선교사 허시모(許時模, C.A.Haysmer)이다. 그는 1925-1926년, 평안남도 평원군의 순안병원에서 활동하던 의사이자 안식교 의료선교사였다. 그는 자기의 사과나무에서 떨어진 사과를 주워가려던 조선소년을 잡아 감금하고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소년의 얼굴에 “도적”이라고 쓰는 엽기적인 만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허시모는 지금까지도 북한의 반종교선전에 악독한 미제승냥이를 대표하는 인물로 인용되고 있다.

저자는 이렇듯 북한에서 선교사의 모습이 악하게 그려지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저자는 특별히 북한 주민들과 탈북자들을 염두하고 이 책을 저술했으며 허시모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선교사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와 편견을 해서하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목적이라고 밝힌다. 저자는 “허시모는 정통 개신교 출신이 아니라 안식교(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출신이지만, 허시모가 북한 주민들에게 기독교 선교사로 각인 된 이상, 그가 저지른 비행을 안식교 탓으로 돌리고 도외시할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그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다.

이 책의 1장 미제 승냥이에서는 허시모 사건에

대한 북한 당국의 주장을 다각도로 살펴본다. 북한 당국은 인민학교 교과서, 신천박물관, 역사사전(1971년), 잡지 천리마(1982년), 사회과학원 학보(2002년), 인민교육, 그리고 어린이 옛날이야기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허시모 사건을 왜곡선전하고 있다. 이 이야기에는 매체에 따라 허시모가 사냥개를 풀어 소년을 물어뜯게 했다가, 소년을 칼로 찔렀다가하는 왜곡된 사실이 추가되어 소개되고 있다. 북한의 각 매체와 기관은 미국인 선교사를 어떻게든 악의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하여 어린이들에게 소개한다.

남한 사회에서 허시모 사건은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사건이지만 북한선교 관련 여러 강연과 글에서 북한의 반종교선전에 관해 다룰 때는 꼭 언급되는 사건이다. 2장 만행미인 에서는 남한에서 이 사건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KBS “남북의창”과 같은 프로그램과 한국교회의 대표적 학자들이 저술한 주요 교회 사저작들에도 허시모 사건이 소개되었는데 대부분의 경우 내용이 정확하지 않고 단편적 서술에 그쳤다. 2004년 삼육대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는 오만규 교수가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안식교 학술지에 “허시모 사건의 진상과 교훈”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고, 공교롭게도 바로 다음해인 2005년 광주대학교의 한규무 교수가 “허시모 사건의 경위와 성격”이라는 논문을 <한국 기독교와 역사>에 발표하였다. 두 논문은 모두 1925-1926년 조선일보, 동아일보, 시대일보, 매일신보 등의 당시 주요 신문에 발표된 기사들을 토대로 허시

모 사건을 조사하였다. 두 교수의 연구를 통해 그동안 한국교회 안팎에서 풍문처럼 떠돌던 허시모 사건의 진상이 일부 규명되었다.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쓸 수 없으나 저자는 2장에서 여러 자료의 추적을 통해 이 책의 제목 “뺨인가 이마인가”의 해답을 드러내고 화학물질로 글씨를 쓴 얼굴의 부위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다.

3장에서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허시모 사건이 발생한 순안병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와 허시모가 어떻게 원장으로 부임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이어 4장에서 저자는 허시모 사건의 진상을 파헤친다. 4장에서 저자는 오만규, 한규무의 선행연구를 통해 소개된 신문기사와 검찰의 기소장, 법원의 판결문 등의 공간문헌들에 더하여 허시모가 부모에게 보낸 편지와 당시 한국거주 안식교인들이 본국에 소식을 전한 편지, 뉴욕의 한 신문에 허시모 사건에 대해 보도한 내용을 더하여 사건의 진상을 밝힌다.

5장과 6장에서는 허시모 사건의 논란과 배경에 대해 밝힌다. 1925년에 일어나서 하나의 엽기적 해프닝으로 끝난 사건이 10개월 후 언론에 보도되며 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 원인에는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의 반기독교운동과 반미여론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부추김이 큰 역할을 했다. 공산주의조직 내부의 역학관계 변화와 반미여론을 조성하려는 총독부의 의도를 간파한 조선의 신문들에 의해 허시모 사건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진정국면에 들어서게 되고 조선일보의 첫 보도가 있는 6월 28일부터 2개월

이 지난 8월 말에는 대중의 관심도 약화되기 시작한다. 허시모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허시모의 귀국후 삶의 행적을 소개하며 저자는 책을 마무리 한다.

분단이라는 현실은 우리가 과거 북한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의 실체에 다가서는데 큰 장애로 작용한다. 북한에서 일어난 사건은 현지조사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남한에서 목격자도 찾기 힘들다. 또한 북한에서 발간된 자료에도 쉽게 접근할 수 없다. 그나마 일제강점기의 사건은 사정이 좀 나운데, 그 이유는 일제강점기의 주요 언론사들이 모두 서울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고, 그 언론사들이 북한이 아닌 남한에서 명맥을 이어오며 아카이브를 통해 과거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 북한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은 그렇지 못하다. 가령 휴전선 이북에서 있었던 사건 중 용암포사건, 신의주 학생운동등 기독교계가 연루된 중대사건들과 이후 전쟁 중에 있었던 수많은 기독교 관련사건들이 있다. 이 사건들은 허시모 사건 보다 훨씬 이후에 일어난 큰 사건들임에도 불구하고 공간문헌자료가 전무하며 관련 자료는 일부 월남 인사들의 회고록과 증언이 전부이다. 이런 사건들 역시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하지 않은 단편적 지식의 형태로 북한 관련 강연과 저술에 사용되고 있다. 반면에 이 책이 다룬 허시모 사건은 당시 사건을 보도한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의 자료가 남아있고 각 신문사에서 당시 신문의 열람이 가능하다. 이는 오만규, 한규무교수를 비롯해 이 책의


저자 한화룡 교수와 같은 연구자들이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2000년대 이후로 남한에 입국하는 탈북민의 증가도 북한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규명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탈북민들의 회고록 혹은 그들이 북한에서 경험한 것과 선대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대한 증언이 휴전선 이북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중요한 역사적 사료가 되고 있다. 이러한 탈북민들의 회고록과 증언은 이책의 저자가 과거 1950년도에 황해도 신천에서 있었던 학살(한화룡, “역사의 진실,” 2015, 서울, 포앤북스)의 진실에 다가설 때와 이번에 허시모 사건의 실체에 다가서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미 2000년대 중반의 오만규와 한규무의 연구를 통해 허시모 사건의 실체가 상당부분 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허시모 사건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던 시절 유명저자에 단편적으로 소개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그대로 반복해서 전파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한다. 2005년 이후로 출판된 유명한 교회사가들의 저작과 수많은 북한선교 관련 강연에서도 2004, 2005년에 밝혀진 허시모와 관련된 사실들이 업데이트 되지 않은 상태로 반복해서 전파되고 그 내용이 또다시 인용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책의 출간으로 인해 적어도 허시모 사건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은 철저하게 사회과학 연구방법론에 의해 연구되고 쓰여졌다. 그러나 책제목과 각 장의 제목은 논문의 제목이 아닌 문학적 함축이 담긴 전형적인 소설 그것이다. 가령 이 책의 제목 “뺨인가

이마인가”, 1장 “미제 승냥이”, 2장 “만행미인(灣行米人)”, 3장 “순안, 순안병원, 순안공항”의 제목들은 이 사건에 대한 이해가 있고 내막을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는 제목이지만 배경지식이 없는 일반 독자들이 보기에 한눈에 들어오지 않고 다소 난해한 면이 있다.

이 책은 목차 앞부분에 유난히 많은 글들이 실렸다. 부탁의 글, 감사의 글, 발행인의 글, 시작하는 글에 추천사도 셋이나 된다. 특별한 점은 이 짧은 글들이 하나같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추천사와 발행인의 글은 모두 이 책의 가치와 의미를 정확하게 지정해주고 있으며 북한 문제에 대한 귀한 통찰을 제공한다. 부탁의 글과 감사의 글 또한 이 책을 읽기에 앞서 알아야 할 중요한 전제들과 사전에 이해해야 할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준다. 저자는 독자를 최대한 배려하여 최선을 다하고 발행인과 추천인들은 그런 저자를 둘러싸고 최고의 응원과 격려를 보내는 모습으로도 보인다. 북한선교와 통일선교 일선의 사역자들은 모두 “국민의 독서량 자체가 낮아진데다 종이책의 설 자리가 좁아진 현실에서 북한과 통일에 관한 책에 관심을 가지고 구입해서 읽는 귀한 독자들”(발행인의 글 중)은 물론 발행인과 저자를 향한 응원에 동참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 책이 북한주민들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벗어버리고, 남한사회에서도 널리 읽혀 북한선교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지식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데 쓰임받기를 바란다. 

1.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최근 영변 핵단지 원자로와 관련해 “2021년 7월 초부터 냉각수 방출을 포함해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들이 있었다”고 발표했으며 북한전문매체인 38노스에서도 북한에서 원자로 재가동의 결과로 보이는 가스 누출이 감지 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영변의 원자로 가동으로 연간 6-10kg을 생산해내지만 이미 영변 이외의 지역에서 연간 고농축 우라늄을 100kg이상 만들어내는 상황이며 북한은 이미 2018년경에 최소 10개에서 최대 60개 가량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남한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으고 북한의 비핵화를 함께 이루어가도록 기도합니다.
2. 북한 내지의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현장에서 전해져 온 북한 내부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부실한 의료체계 속에서 코로나로 의심되는 질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앓아 눕거나 죽고 있습니다. 또한 극심한 국경 통제와 밀수 단속으로 인해 장마당도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고스란히 일반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미 공식석상에서 제 2의 고난의 행군이 언급될 정도로 어려운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사람들을 계속 동원하여 각종 노동 전투에 참여시키고 혹사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이 진정으로 인민들의 안위를 위하는 태도가 바뀌도록 기도합니다.
3.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국가적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 외에 여러 조선족 사역자들이 북한에 억류되어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숨죽이며 비밀리에 신앙을 지켜가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으며, 믿음을 이유로 정치범수용소와 교화소, 감옥에 갇힌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 박해를 하루속히 중단하도록 기도합니다.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고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로 변화되도록 기도합니다.
4. 제3국에 인신매매로 팔려온 탈북 여성들의 성경 공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도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비밀리에 탈북민 여성들이 성경 공부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체류국의 종교 탄압이 심해지면서 위축된 분위기와 시부모와 남편의 학대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탈북 여성들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탈북여성 기독교인들로 인하여 그들의 가족과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 그 가정 이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들을 통해 주님의 방법으로 북한의 지하 교회가 더욱 더 강건하여지는 기초가 되고, 앞으로 있을 통일 한국, 복음 한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북한 기도 제목

- 원활한 추수와 충분한 식량공급을 위해 기도합니다. 추수철을 맞아 북한 당국은 공업부문의 전력생산과 송배전은 물론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와 자재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직의 지원강화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북한은 작년과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큰물(홍수)피해가 있었고 특별히 고온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월 작년의 태풍피해에 대한 언급과 함께 식량생산에 만전을 가할 것을 지시한 이후로 아직까지 관련된 대대적 보도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북한의 올해 작황은 작년보다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올해 농사가 잘 마무리 되도록, 주민들의 식량난이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 남한사회가 대선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각 당의 경선이 진행되고 있고 각 예비후보들의 외교안보-북한관련 정책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남한의 대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준비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대선의 과정에서 북한-통일과 관련된 수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국민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창의적인 대북정책이 개발되며 남한사회에 북한문제-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기도합니다.
- 한국오픈도어선교회에서는 2021 북한선교학교를 10월 12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선교학교 전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그리고 각 순서 맡은 강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북한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잘 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또한 북한 선교에 뜻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번 선교학교를 통해 자신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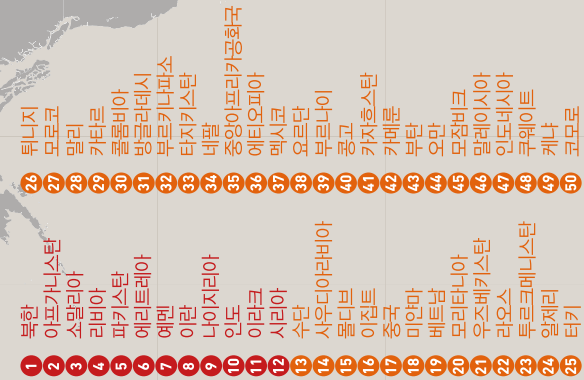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1년 10월 1일

OpenDoors

World Watch List 2021 월드와치리스트- 기독교박해지도

크리스천들을 가장 박해하는 국가 TOP 50



박해수준

● 극심한 수준의 박해 ● 매우 높은 수준의 박해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는 크리스천의 박해가 가장 심한 50개 국가들의 순위를 정한, 북반구적이고 종합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오픈도어 분석가들이 150개 국가의 현황으로 부터 오는 실제적인 데이터를 분석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각 국가의 박해수준은 오픈도어가 이용하는 평가점수 시스템에 의해 기록됩니다. 이것은 폭력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 생활 가운데 얼마나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지 여부가 보장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픈도어의 조사 방법과 결과는 국제종교자유기구(International Institute for Religious Freedom)에 의해 감사를 받습니다. WWL 2021 데이터는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기간에 해당됩니다.

"내 삶과 조국을 위해 내 마음과 꿈을 다시 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은 민주주의 사회에 정착하지 못 했거나 지난 후, 더 중요하게는 많은 기도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열어놓은 나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오늘 열린 마음으로, 나는 북한에 대한 나의 꿈과 희망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습니다." 탈북 디모데 형제

"너희도 함께 간헐 것 같이 간헐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81133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
www.opendoors.or.kr





2021 오픈도어 온라인 북한선교학교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한국오픈도어선교회에서 온라인을 통해 2021 북한선교학교를 개최합니다. 북한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될 이번 선교학교는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실제적인 선교 참여의 계기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1. 강의 일정

- 기간: 10월 12일-11월 30일 (8주 과정)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2. 주제: 복음의 현장에서 북한을 품다

3. 강의 목록



날짜	주제	강사
1강 (10월 12일)	북한 선교 개론	김성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이사장, 총신대 명예교수)
2강 (10월 19일)	북한의 사상과 체계에 대한 성경적 접근	정종기 (고신통일선교원 원장, 아세아연합신대 교수)
3강 (10월 26일)	국내 탈북민 복음화와 통일선교	강디모데 (엔케이피플 선교회 대표)
4강 (11월 2일)	미디어를 통한 북한선교	성훈경 (북방선교방송 대표)
5강 (11월 9일)	탈북자 사역과 국제 NGO의 북한선교	팀 피터스 Tim Peters (Helping Hands North Korea 대표)
6강 (11월 16일)	해외 북한 여성 사역	오픈도어 사역자
7강 (11월 23일)	해외 북한선교현장	
8강 (11월 30일)	북한 지하교회와 내지선교	

(강사 및 일정 변경 가능)

4. 접수

- 9월 1일 - 10월 6일까지 오픈도어선교회 홈페이지(www.opendoors.or.kr)에서 온라인 접수 진행
- 등록비: 4만원 (목회자, 신학생, 탈북민 50% 할인)

5. 문의: 오픈도어선교회 다니엘 간사 (Tel: 010-5107-8448, E-mail: info@opendoors.or.kr)



한국 오픈도어

천서게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